禪茶 알리는 스님들

하는일 달라도
차사랑은 한마음

불가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구도의 방편이다. '차나 한 잔 드시오(喫茶去)'라는 조주 스님의 공안이나 '선다일미(禪茶一味)'로 대표되는 선차(禪茶) 문화는 불가에서 차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 차문화의 중흥조인 초의 스님의 뒤를 이어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스님들을 소개한다.

수산 스님 • 60여년간 전통제다법 지켜

백운 스님 • 다맥 전수 차축제에 열성

지허 스님 • 다담 통해 보급, 홍보 주력

성우 스님 • 강좌, 출판 통한 대중화

용운 스님 • 초의 선사 관련사업 활발

여연 스님 • 12개 다회 운영 茶 생활화

선혜 스님 • 학술, 교육 등 활동 다양

선차의 대가로 존경받는 불갑사 조실 수산 스님. 세수 80이 넘은 스님은 지금도 봄이면 500여 평이 넘는 불갑사의 차밭에서 직접 찻잎을 따고 무쇠솥에 덖어 차를 만든다. 만암 스님에게서 차를 배운 스님은 무쇠솥과 돗자리에서 아홉 번을 덖는 전통제다법을 60여 년이 넘게 지켜오고 있다. "채다(採茶)할 때의 향기와 아홉 번 덖은 후의 맛이 일치해야 진정한 선차(禪茶)"라는 스님은 "찻잎을 덖으며 죄업을 참회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한 차 만드는 일이 내 수행의 방편"이라고 말한다. 저녁 공양 후 서옹 스님과 차를 마시다 열반에 든 만암 스님의 뒤를 이어 선차문화를 이끌고 있는 수산 스님의 차사랑 덕분에 오늘날까지 불갑사의 차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부산 미륵사 주지 백운 스님은 초의의순 스님과 여암선기, 쌍수일한, 응송영희 스님으로 이어져오는 다맥(茶脈)의 전수자로 알려져 있다. 제6회 명원차문화대상 학술상을 받기도 한 스님은 지난해 '초의다맥 한국선다회'를 발족하고 쌍계사에서 다맥 전수식을 개최했다. '초의 스님의 다맥을 공식적으로 전수하고 그 뜻을 기린다'는 뜻으로 선다회를 결성한 백운 스님은 앞으로 선다회를 법인으로 등록하고 매년 쌍계사에서 차맥전수식과 차문화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직접 차를 재배하며 차회나 단체를 이끌고 있는 스님으로는 파계사 성우 스님과 선암사 지허 스님, 일지암 여연 스님, 석정원차회 선혜 스님, 다성사 용운 스님 등을 들 수 있다.

불교TV 회장이자 대구 파계사 주지인 성우 스님은 96년 불교텔레비전의 '차문화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차문화 대중화에 앞장섰다. 파계사 차회 '불이다회'를 이끌고 있는 스님은 불교TV문화원에서 다도강좌를 열기도 했다. 시인이자 명상태교 전문가로도 널리 알려져있는 스님은 차 생활에서 얻은 화두를 선사상과 접목시킨 책 <다도>와 시집 <차향기>를 펴냈으며 다촌문화상과 초의차문화상을 받기도 했다.

불교계의 이름난 차 전문가인 지허 스님과 여연 스님은 지난해 '전통차 논쟁'으로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찰 차밭에서 차를 따는 스님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허 스님은 지난해 1월 펴낸 <아무도 말하지 않은 한국 전통 차의 참모습>이라는 책에서 "일본 녹차는 쪄서 말린 것이어서 우려내면 녹색이 나고 풋비린내가 나지만, 한국 전통 차는 자생 차나무의 잎을 손으로 덖고 비벼서 만든 것으로 우려내면 다갈색이고 구수한 숭늉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연 스님은 '다갈색에 숭늉내가 난다는 말은 차를 너무 심하게 볶거나 태웠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는 등 지상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다도'라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눈으로는 색을 보고, 코로는 향을 맡고 입으로 그 맛을 음미하면서 그저 각자 성품에 따라 차의 진정한 내용에 몰입하는 것이 우리 고유의 다도라는 데는 의견을 함께 하기도 했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차를 만들어온 지허 스님은 찻잎을 두께 1㎝의 무쇠솥에 아홉 번 덖고, 멍석에 아홉 번 비벼 만드는 방식을 취한다. 스님은 매달 일반인들을 초대해 직접 만든 차를 나누어 마시며 우리 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 '산중다담'에 참가했던 임권택 감독과 김선두 교수(중앙대)를 비롯한 문화계 인사들이 모여 한국전통자생차보존회를 결성하고 전통차 보급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초의선사가 주석했던 일지암 암주를 맡고 있는 여연 스님은 형식에 매인 차문화가 아닌 생활 속의 차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효당 스님에게서 차를 배운 스님은 76년부터 차를 만들기 시작해 77년 국내 최초로 결성된 '다도회'의 간사를 거쳐 78년 한국차인연합회 고문으로 일지암 복원에 참여했다. 91년 일지암 암주 소임을 맡은 후 98년 '일지암 초의차문화연구원'을 열고 2백여 명이 넘는 제자를 길러냈다. 지난해 말 광주 예술의 거리에 연구원을 마련한 초의차문화연구원은 서울과 광주, 순천 등 12개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성사 주지 용운 스님은 97년부터 전남 무암군과 함께 무안군 삼향면 초의선사 생가터에 생가를 복원하고 '초의선사기념관'과 '차문화관'을 설립하는데 앞장서는 등 지역 차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다. 90년 초의문화재단을 설립한 스님은 97년 5월 서울 인사동 초의선원에 실물크기의 초의선사 목각좌상을 봉안하기도 했다.

성신여대 예절다도학과 교수이자 석정원차회를 이끌고 있는 선혜 스님은 학계와 다도 모임을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80년 석정원차회 연구실을 개원, 다도 교육을 시작한 스님은 87년 서울 인사동에 불교전통문화원을 열고 다도 교육을 하고 있다. 그동안 사원전통차례인 불전헌공다례와 부도다례 등을 발표하기도 한 석정원차회는 대전과 울산, 부산, 춘천, 제주도에 지회를 두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차문화 교육현장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예절다도학과

예 정신 널리 알리는 지도자 양성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의 이념을 계승하기 위하여 세워진 사학 성균관대학교. 건학 600여년의 전통을 간직한 성균관대에는 다도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예절 다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예절다도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지난 2000년 문을 연 예절다도학과는 물질은 풍요롭지만 심성은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에게 예(禮) 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목표로 설립됐다. 매년 40여 명의 생활과학대학원생 중 15~20여 명의 학생이 지망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예절다도학과에는 여느 특수대학원이 그러하듯, 2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우러져 공부하고 있다.

재학중 중·고 대상 다도 실습
졸업생에 재교육 기회 제공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덕분인지 학생들의 학습 열정이 대단하다"는 조희선 주임교수는 "졸업생들의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고 말한다.

"차는 종합과학"이라는 조 교수의 말처럼 이곳에서는 2년 6개월 동안 다도를 이해하기 위한 동양삼국의 다도철학을 비교 분석하는 다도철학과 차의 사상과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다도와 예술, 유·불·도에서의 다례를 배우는 종교와 다례, 다도지도자 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다루는 다도지도론 등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강의 외에도 매년 봄이면 보성과 제주도로 제다실습을 나가고 가을이면 들차회를 연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육실습. 2월이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다도교육을 한다. 또한 수차례의 세미나를 열어 서로의 연구 결과물을 나누고, 방학 때는 졸업생이 직접 세미나를 주최해 재교육의 기회를 갖기도 한다.

올해부터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교양과목 '인성품'의 심화과정인 '인성특품' 과정을 예절다도학과에서 맡게 된다. '인성품'이 예절다도의 이론을 가르치는 과목이라면, '인성특품'은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실습을 졸업생들이 맡아 지도할 예정이다.

때문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생활 속에서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성균다법'을 다듬어 나가고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통일된 다법을 지도하기 위해서다. 이는 곧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생활예절다도 지도자로서의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

여수령 기자

인터뷰 조희선 주임교수

옛 것과 조화 이룬 다법 펼칠 것

"요즘 사람들은 이웃은 물론 가족 사이에서도 예절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절다도학과는 우리 전통의 예 정신을 오늘날에 맞게 재정립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곳입니다."

예절다도학과 주임교수인 조희선 교수는 지난해 두 가지 큰 일을 치러냈다.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다도 교양강좌의 심화과정을 신설하는 산파 역할을 했고, 예절다도학 박사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예절과 다도는 어느 것이 더 큰 영역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조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차 생활의 옛 모습을 지키며 현대생활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고창신(法古創新)' 다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한다.

마하몰 갑신년 설맞이 특판기획전

구매고객 모두에게 고급원목단주를 증정합니다. 무료배송(단 3만원이하 제품은 배송료 4,000원 별도)
[기간] 2004년 1월 14일 ~ 2월 13일까지 (딱, 한달간)

※ 마하몰에 직접 방문하시면 희담석의 효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희담석 스님용 보료 (15%할인)
판 매 가 : ~~2,800,000원~~
특 판 가 : 2,380,000원
사 이 즈 : 90cm X 180cm X 10cm
※ 설치비 별도(10만원)

37° 氣 제품 한개더 100개한정 판매

● 황토달마 100개한정 판매
판 매 가 : ~~198,000원~~ ⇨ 특 판 가 : 98,000원
규 격 : 가로 25cm x 세로30cm
재 질 : 지리산 황토 100%
특 징 : 황토달마를 집안에 모시고 물을 뿌리면 겨울철에 가습기역활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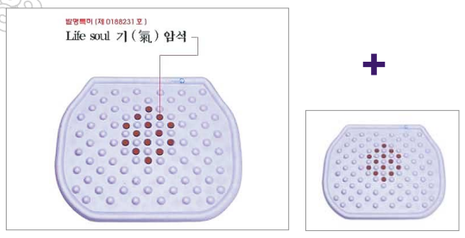
● 희담석 방석 (20%할인)
판매가 : ~~198,000원~~ ⇨ 특 판 가 : 158,400원
사 이 즈 : 38.5cm X 35.5cm 색 상 : 회색, 살구색

● 희담석 찜질팩 (20%할인)
판매가 : ~~38,000원~~ ⇨ 특 판 가 : 30,400원

희담석 체험사례

▶ 경안스님<전남 덕흥사>
좌선을 하거나 혹은 경서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책상 앞에 있다보니 고질적인 치질로 하여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소개받아 사용했는데, 그 놀라운 효능을 곧 느낄수 있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좌선을 해도 편안하고, 장시간 책을 보아도 맑은 정신이 그대로 유지 되어서 좋다.

▶ 김용섭<여/66세, 강북구 미아동>
한 달에 대여섯 번씩 열꽃이 솟고 팔꿈치 윗부분이 숨도 못 쉴정도로 아프던 지병 때문에 지난 10년간 좋다는 원적외선 치료기, 각종 매트등을 사용해 봤으나 일시적으로만 약간 나은 정도였다. 그런데 우연히 <희담 침대>를 알게 되어 하룻밤 자고 났더니 온 몸이 푸근하고 편안했다. 보름 정도 자고 나니 10년 동안 느껴오던 그러한 통증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이제 사용한 지 두달이 넘었는데 그렇게 극심했던 통증이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 내 통증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매우 놀라와 했다.



● 37° 氣베개 - 일반 메모리폼 베개가 아닙니다
판 매 가 : ~~69,000원~~ ⇨ 특 판 가 : 60,000원(2개)
색 상 : 아이보리, 하늘색
사 이 즈 : 47cm x 29cm x 8cm

● 37° 氣방석
판 매 가 : ~~40,000원~~ ⇨ 특 판 가 : 20,000원(2개)
색 상 : 연보라, 베이지
효 과 : 생리통, 냉대하, 두통, 냉습, 신장기능저하, 신진대사 불량에 좋습니다.

● 달마원목시계(원형, 팔각형)
판 매 가 : ~~55,000원~~
특 판 가 : 각 33,000원
재 질 : 체리목 크 기 : 400mm
특 징 : 고급 무소음 무브먼트를 사용하여 고장이 없고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1년간 무상 A/S)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하몰 주문 전화 : 02)732-1520
농협 : 053-12-113210 하동규